밤샘수사 없애고 지명수배도 체포영장 받아야

경찰혁신위원회, 수사경찰 인증제 등 개선 방안… 고시 합격 100명 특채도

앞으로 경찰서에서 피의자에 대한 밤샘 조사가 엄격히 제한되며, 지명수배도 반드시 먼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해진다.

경찰청이 민간 경찰혁신위원회(위원장 한완상 한성대 총장)의 제안 내용을 수용해 24일 발표한 '수사경찰 자질 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를 해놓고 불심검문을 통해 피의자를 발견했을 때 긴급 체포하는 경찰의 검거방식이 바뀌게 된다. 또 피의자 신문조서에 연행일시·취침·휴게시간 등을 적도록 해 이른바 '잠 안 재우기 수사' 관행을 없애고, 야간 조사는 1차적으로 피의자에게 거부권을 주되 사안이 중요하거나 복잡해 불가피할 경우 야간 상황실장이나 담당 과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방안은 수사경찰의 자질 향상을 위해 수사관 1만5천여명에 대해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경찰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분산돼 있는 수사교육을 통합해 '수사경찰교육원'(가칭)도 신설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앞으로 3년 동안 고시 합격자 1백명을 사법시험 90%, 행정·외무고시 10% 비율로 경정으로 특채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75개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윤창희 기자
theplay@joongang.co.kr

아남반도체 630억 손실 위기

법원 "해외펀드 손실 보증한 계약 유효"
아남측 "김석기 前중앙종금 회장에 속아"

아남반도체가 해외에 역외펀드를 설립할 당시 금융기관들과 불리한 조건으로 맺은 확약서(Letter of Commitment)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남반도체는 이에 따라 6백30억원대의 금융 부담을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洪基宗부장판사)는 24일 외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펀드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아남 측이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는 내용의 확약서를 체결한 만큼 손실 부분을 책임지라"며 아남반도체를 상대로 낸 6백30여억원의 출자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들이 손실 부분을 신주 인수 대신 '금전'으로 달라고 청구해 이를 기각한다"며 "그러나 아남반도체는 확약서상 의무는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시중은행이 금전 대신 확약서대로 아남반도체에 4천8백60만달러(약 6백30억원)어치의 신주를 인수하라고 요구할 경우 아남반도체 측은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남반도체는 1996~97년 말레이시아에 투자 목적의 역외펀드를 설립하면서 이에 투자한 5개 금융기관과 '펀드 보유 자산의 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로 주식을 인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펀드가 부실 운용으로 원금마저 상당부분 까먹자 채권 은행단은 2001년 9월 아남반도체에 이 펀드의 주식 4천8백60만달러어치를 배당하기로 결의했다. 아남반도체 측은 이에 대해 "확약서는 당시 김주진 대표이사가 지인이었던 김석기 전 중앙종금 회장에 속아 체결한 것이고, 이사회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주식 인수를 거부해왔다.

한편 金전회장은 1999년 골드뱅크의 6백6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홍콩으로 도피한 뒤 현재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김현경 기자
goodjob@joongang.co.kr

"담뱃값 인상 미루면 국민건강 해친다"

이종욱 WHO 사무총장

세계보건기구(WHO) 이종욱(李鍾郁·사진)신임 사무총장은 24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담뱃값을 올려 줄어드는 세수보다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다"면서 "담뱃값 인상을 미루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잡히는 꼴"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담배 한갑의 가격을 2천원에서 3천원으로 대폭 올려 흡연율(지난해 현재 60.5%)을 5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고 하고, 재경부나 예산처는 세수가 줄고 물가가 오른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李총장은 경제부처의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담뱃값을 올리면 세수가 다소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돈이 국가 재정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 미미하다. 담배가 폐암 등의 병을 일으켜 여기에 몇십배·몇백배 더 들어간다."

李총장은 "국민들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가장(정부)이 가족의 건강을 해치도록 하면서까지 담뱃값 인상을 우물쭈물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3일 청와대를 예방한 자리에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에게 담뱃값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으며 대통령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담배로 번 세 수입은 3조7천억원, 담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6조2천여억원(2000년 기준)이었다. 담배의 손실은 ▶조기 사망으로 인한 근로 손실 5조9천8백44억원▶질병 치료비 6백9억원▶간접흡연 1천7백21억원▶화재 1백71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복지부 생각대로 흡연율을 16.6%가량 떨어뜨리면 1조원 가량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담배 판매량이 줄면서 세수입은 6천여억원 줄지만 가격 인상에 따라 세 수입이 늘기 때문에 세수 감소는 6천억원보다 상당히 적을 것이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李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계 에이즈 감염자가 4천명에 달하며 사하라사막 남부 아프리카에 2천7백만명이 몰려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2005년까지 3백만명이 에이즈 약을 먹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총장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6차 WHO 총회에서 제6대 사무총장으로 인준됐으며, 다음달 21일 취임해 5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교원 지방직 전환 반발 전교조·교총 연대 모색

정부, 오늘 임용권 이양 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던 교육단체들이 정부의 교원 지방직 전환 방침에 대해 함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로간에 비난을 퍼부어왔던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지방직 전환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전선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5일 교장 등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안 등을 놓고 심의한다. 여기서 통과되면 법제처·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 지방직화를 반대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교총과 뜻이 같기 때문에 연대투쟁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직화 의미**=현행 교원의 임용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교원의 지위는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임용권은 시·도교육감이 갖는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를 정착시키고, 인사업무의 효율화·간소화를 위해 지방이양에 찬성하는 검토 의견을 냈다.

실제 현행 임용방식에서도 누구를 교장에 임용할지 등의 실질적인 권한은 시·도교육감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6개 시·도교육청 중 15개 교육청도 "사실상의 권한을 지닌 시·도교육감에게 이에 따른 책임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냈다.

◇**왜 반대하나**=교육 관련 단체들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01년을 기준으로 95.5%(서울)~22%(전남)로 편차가 큰 상황에서 교원을 지방직화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서는 교원 신분 불안, 교원 채용 감소 등의 문제점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러다간 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강홍준 기자
kanghj@joongang.co.kr

어린이들 6·25 평화대행진 (사)남북어린이 어깨동무 주최로 24일 오전 서울 건국대에서 열린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 6·25 평화대행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통일을 희망하는 글귀를 적어 넣은 노랑나비 모형을 흔들고 있다. [연합]

'아시아 인재 양성' 첫 결실

국제법률경영대학원 25일 1기 졸업생 배출

중국 베이징 정법대를 졸업한 뒤 한국에서 2년간 국제법 공부를 해온 자잉(賈穎·27·여)은 고국에서 변호사로 활약할 꿈에 부풀어 있다. 베트남 국립대에서 법률을 가르치게 될 구엔 디 빅 딥(28·여)도 한국에서 2년간 공부에 파묻혀 지내왔다.

이들 모두는 25일 석사학위를 받고 국제법률경영대학원(www.tlbu.ac.kr) 1기 졸업생이 된다.

이 대학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 교수와 학장을 역임했던 유병화(柳炳華·57)총장이 만든 로스쿨이다. 이번에 석사학위를 받는 학생들은 캄보디아·인도네시아·미얀마 등 아시아 6개국 33명. 柳총장은 "아시아 장래 지도자들을 제자로 삼게 됐다"며 대견스러워했다.

그가 대학원 설립을 구상한 것은 1970년대 말이다. 외교관 시절 아시아 각국이 세계 무대에서 힘을 합치기는커녕 반목을 일삼는 데 아쉬워해 왔다. 하지만 이 그림은 대학원이 생기기 전만 해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대학원을 세우겠다고 뛰어다닐 때는 주변에서 "괜한 일 벌인다"며 말리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땀을 매일하고, 도로를 내고, 건물을 세우고…. 모든 일이 柳총장의 손을 거쳐 이뤄졌다.

미국 유명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도 아시아 지도자를 키우겠다는 柳총장의 포부에 반해 교수로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2001년 3월 개교했다. 한해 교육비만 15억원이 넘지만 그 돈은 영어 캠프 운영이나 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해왔다.

강홍준 기자

제10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접수안내

■ 개최기관
○주 최 : 한국디자인진흥원
○후 원 :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조달청,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 찬 : LG전자, 삼성전자

■ 접 수
○**수 도 권 : 2003. 7. 21(월) ~ 7. 23(수)**, 3일간 18:00까지
- 한국디자인진흥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기타지역 : 2003. 7. 21(월) ~ 7. 22(화)**, 2일간 18:00까지
- 강원 : 강원대학교 나래관 2층 전시실 (033-250-8710)
- 충부 : 한국디자인진흥원 충부지원 (042-864-2631)
- 영남 : 한국디자인진흥원 남부지원 (051-740-7477)
- 호남 : 한국디자인진흥원 호남지원 (062-953-0962)

■ 출품자격
○출 품 자 :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단, 대안학교 및 중퇴자 포함)이어야 한다.
※지도교사는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재직중인 교사

■ 문 의 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면선팀 / TEL: 031)780-2161~5, 7 / FAX: 031)780-2163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우 463-828)

※동 행사와 관련한 도든사항은 KIDP 홈페이지(http://www.designdb.com)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실업훈련 전문 우수기관

실업훈련 수강생 모집

교육과정	교육내용	기간	접수	시간	자격조건
용 접 (30명)	• 귀리 및 스테인리스 철판 • 테관용접(아크)	7. 7 ~ 10. 6	7. 2 까지	1일 6시간 (09:00 ~ 15:50)	○고용보험(사회) 고용보험적용 실직자 ○일반실직자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 ○취업준비대상자 가주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 등록을 필한분
타 일 (30명)	• 재료배합 • 도기질 타일작업 • 타일압착시공작업 • 자기질 타일작업				
도 배 (30명)	• 제단법 • 발로시공법 • 특수벽지바르기 • 실크시공법				
건축배관 (30명)	• 건축배관 시공 • 건축배관 법규 • 테관용접 실습 • 보일러 시공,취급				※ 공통 고용안정센터에서 ○주소등록증 ○직업훈련상담을 받고 ○직업훈련상담 확인증을 제출한 훈련대상자

① 전형방법
○서류 전형
○면 접 (면접일자: 7월 2일 오전9시)
○수료후 취업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자로 본교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

② 특 전
○훈련성적우수자 장학금지급 및 취업 알선
(삼성건설협력사 성건회와 취업약정 및 알선)
○우선식중수당 - 매월 200,000원지급(도배 제외)
○실업대상 - 교통비 50,000원, 식비 50,000원
○자활대상 - 교통비 70,000원, 식비 70,000원, 수당 100,000원 지급

③ 제출서류
① 구직등록필증 1부
② 직업훈련상담확인증 1부
③ 사진 1매
④ 의료국통장사본 1부
⑤ 직업훈련카드발급 신청서(본교비치) 1부
◆지하철 : 6호선 이태원역(3번, 4번출구) 보광동 방향 도보5분
◆버 스 : 서울역, 남영역, 국방부앞 23번, 81번 대학 정문앞하차

서울정수기능대학(능력개발센터)
문의 : ☎ 2001-4130~6 www.sjpc.ac.kr

男女 經歷人士招聘

當社 組織 확장계획에 依해 誠實하고 自信感있는 분을 초빙합니다. 40-50代의 退職은 國家的 낭비이며 가장 일할나이에 休職상태에 있는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當社는 40-60代가 당당하게 일할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退職 및 停年退職 하신분도 勇氣있게 挑戰 하십시요. 도전없는 成就는 없습니다.

1 모집부문

독자관리 및 경영업무 (40~62세)	공무원,교육계,금융계,군장교,기업체출신
홍보 및 텔레마케팅업무 (35~55세)	텔레마케팅 경험자(초보자도 가능)
조직관리 및 교육업무 (40~58세)	조직관리 및 교육능력 있는분

2 제출서류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전원내근직)

3 전형방법
본인직접내사 (서류접수후 당일면접)

4 접수기간
2003년 6월 25 ~ 27일 (3일간) 오전10시 ~ 오후 5시까지

5 접 수 처
서울시 중구 순화동 5-2호 순화빌딩11층 1105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A회의실

6 교 통 편
지하철 1, 2호선 시청앞 하차

7 전 화
02)751-9962

중앙일보 시사미디어(주)